	보도 자료			이차의 구*
인천광역시	배포일자)월 14일(금) · 2매	대한민국의□ 2
담당 부서 교통정책과	담당자	교통정책팀담당자		3 440-3851 3 440-3853
사진(이미지)	□ 없음	음 ■ 있음	참고자료	■ 없음 □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교통공사 제11대 김성완 사장 임명

- 김성완 신임 사장, 서울교통공사, 김포골드라인 등 두루 거쳐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4일 제11대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 김성 완 전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.

신임 김성완 사장은 1994년 구(舊) 서울도시철도공사 창립멤버로 시작해 서울교통공사 실장과 본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, 그간의 능력을 인정받아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로 재직했다.

인천교통공사는 연평균 1억 4천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종합교통공기업으로, 인천 도시철도 1호선, 2호선, 7호선(인천·부천구간)을 비롯해 준공영제 시내버스, 청라-가양 BRT, GRT, 장애인 콜택시, 월미바다열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.

300만 인천시민의 발로, 교통편익 제공의 핵심기관으로 역할 수행은 물론 경영효율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, 교통공 사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지닌 신임 김성 완 사장의 역량이 기대된다. 한편, 이 날 강상석(전 인천시 행정관리국장), 신영은(전 인천시의회 의원) 비상임이사도 함께 임명됐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9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'인천시 인터넷방송'(http://tv.incheon.go.kr/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